

■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기부, 나의 행복으로 다시 돌아왔다”

제주콩나물영농조합 박명순 대표
소외아동위해 매월 기부
고액기부로 그린노블클럽 가입
“기부도 서로간의 약속...
마음 깊은 곳에 신뢰 새겨”



제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박명순 대표(사진 왼쪽)가 직접 재배한 콩나물을 앞에 두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제주시 이호동에서 콩나물 농장을 운영하는 제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박명순 대표(62)는 콩나물이 속속 자라듯 아이들도 건강하게 커가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돕고 있다. 한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의 여섯 번째 주인공인 박명순 대표를 소개한다.

박 대표는 1999년에 지인을 통해 우연히 콩나물 농장을 인수하면서 세 자녀를 둔 어머니에서 사업가로 변신했다. 사업 시작 10년 간은 적자에 허덕이며 빚만 쌓였지만, 남편과 자녀 등 가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한다.

박 대표는 “농장을 인수하고 시행

작업을 많이 겪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농장에서 지내게 됐다”며 “한창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세 자녀에게 신경을 못써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자녀에게 못 다한 사랑은 사회에 대한 봉사과 어린이 후원으로 이어졌다. 평소 봉사단체인 적십자와 로타리클럽에서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던 박 대표는 2018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 후원을 약속해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했다. 그린노블클럽은 아동들을 위한 전국 유일의 고액 후원 클럽이다.

박 대표는 “처음에는 농장 경영이 힘들었지만, 돌아해보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를 위한 기부와 봉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콩나물 사업을 하는 사람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힘들게 시작했던 사업은 각고의 노력 끝에 친환경무농약 품질 인증 등을 받으며 어엿하게 자리를 잡았다. 어려운 시기에 박 대표를 믿고 기다려준 거래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사업을 하면서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은 박 대표는 기부를 하면서도 항상 신뢰를 마음 깊이 새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거래처와의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면서 “기부도 마찬가지다. 기부는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콩나물에 직접 물을 주며 밤을 새웠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콩나물이 자라나는 기쁨을 알고 있다. 어린이 기부도 같은 마음”이라면서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가 내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고 밝게 웃었다.

※후원문의=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064-753-370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초등돌봄위해 아동돌봄조례 제정해야”

제주여가원 연구결과 발표
“돌봄협의체 활성화 필요해”
‘틈새돌봄’ 시범운영도 제안

한 돌봄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및 공적 돌봄기관 확충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제주마을돌봄 틈새돌봄’의 시범운영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제주아동돌봄협의회 구성·운영, 우수돌봄기관 선정 및 거점기관 확대 방안 모색, 마을돌봄지원단 구성·운영 등도 제안됐다.

민무속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지역 현장에 적합한 방과후 돌봄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가 어떻게 추진돼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4일 ‘제주 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초등 아동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일 생활권 내에서 안전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도내 기관운영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돌봄 수요조사를 통한 공급, 지역별 적합한 돌봄기관 운영을 위한 자원 발굴 및 협의체 운영 활성화, 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지역별 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한 ‘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과 ‘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방과후 돌봄 전담조직 구성’이 제안됐다.

또한 지역별 돌봄 수요조사를 통



가을 깊어가는 마라도... 갯속부쟁이 만개 14일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 갯속부쟁이가 활짝 피어나 제주의 가을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특별법에 교육감 자율권, ‘허맹의 문서’”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도, 교육청 의견 수용 안해”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감의 자율권이 ‘허맹의 문서’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궁남)는 1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 의원은 “제주도청은 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현재 3차 종합계획을 위해 13억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종합계획에는 교육 분야도 포함돼 있는데, 도 교육청의 입장이 전혀 없다. 이는 제주교육의 미래상에 대해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여 정 의원은 “이러한 계획에 도교육청이 배제됐다는 것이 말이되나”면서 도청과 도교육청간 소통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도청에서 우리 쪽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며 “다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긴 했다. 하지만 도청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실장은 또 “특별법에 나온 교육감의 자율권은 속된 말로 허맹의 문서”라며 “현재 자체적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TF팀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미래비전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연호(국민의힘, 표선면) 의원은 학교에 배치되는 ‘시설관리직렬’의 결원 인원이 60명에 달한다는 것에 대해 따졌다.

이에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시설관리직렬 직원이 단순 노무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때문에 시설관리직렬은 신규 채용보다는 학교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한라병원 제주 최초 뇌사자 간이식 성공

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은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뇌사자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한라병원에 따르면 김건국 외과 교수팀은 지난달 11일 심각한 간부전 증상을 앓고 있던 60대 여성 A씨에 대해 뇌사자의 간을 제공받아 성공적으로 이식수술을 했다.

A씨는 난치성 복수 및 간성 혼수를 동반한 말기 간부전 환자로, 지난 9개월간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반복해왔다. A씨에게 유일한 치료 방법은 간이식이었으나 기증자가 없어 시행이

어려웠고, 그간 중환자실에서 머물러 왔다.

다행히 타 지역에서 A씨에게 적합한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이뤄져 응급 간이식 수술이 시행됐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A씨는 수술 후 빠른 안정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6일간 집중치료를 거친 후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현재 A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집도했던 김건국 과장은 “간이식 수술은 매우 많은 의료진과 병원의 시스템이 필요한 수술”이라며 “특히 응급으로 진행되는 뇌사자 간이식 수술은 병원 시스템의 탄력적인 집중과 순발력을 필요로 해 삼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도 일부 선택된 병원에서만 진행되는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거짓 뉴스 청정 방역! 신문입니다

사실일까? 거짓일까?
온라인에 떠도는 출처 없는 가짜뉴스들...
신문은 철저히 걸러냅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